

# 국힘 “야당 석고대죄해야”...민주 “책임 묻는 노력 계속”

여야 이상민 탄핵 소추 기각 공방  
김기현 “현재 결정은 당연한 귀결”  
박광은 “국가적 참사 앞 부끄럽다”  
심상정 “참사 책임 누구에게 묻나”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강하게 반발하며 “현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현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

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현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며 “그러나 단연컨대 민주당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현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현재 결정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야권은 현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SNS에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복귀 첫날 수해현장 찾은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中 대표단 방북 등 北전승절 동향 논의

### 北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강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5일 3차 유선 협의를 하고 중국 대표단의 방북 등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북한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부르는 명칭) 70주년 행사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길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전승절 경축 행사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와 도발 자체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촉구한 만큼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찾는 것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북한 국경 개방 가능성 등에 대해 소통했을 것으로 보인다. 3국 수석대표들은 전날 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한일 오염수 국장급 실무협의의 나서 열려

### 한국 전문가 참여 등 논의

한일 당국이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전을 겸해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날 협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게 요구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 공유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 요구사항에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AEA 권한이지만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양국 협의의 결과는 26일 정부의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전승절 행사 中 대표단 초청...北, 코로나로 닫힌 국경 개방하나

### 2020년 이후 외국 단체 방북 처음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 정전협정기념일 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평 단아했던 국경을 마침내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격)인 리홍중(李鴻忠)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오는 26일 방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이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교역은 일부 진행했지만, 인적 교류만큼은 철저히 제한해 왔다.

북한에 외부 인사가 들어간 건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가 지난 3월 말 부임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다.

북한은 팬데믹 기간 각종 국제행사에도 평양에서 인사를 파견하는 대신 해외에 주재하는 이들을 대신 참석시키는 것이 외교 관행이었다. 우방국과의 회의도 비대면 방식을 고수했다.

이달 초 북한이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

치를 해제하면서 대외교류도 정상화할지에 시선이 쏠렸지만, 이날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아세안 대사가 참석한 바 있다.

그러던 북한이 중국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한 것은 약 3년6개월여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해외에 있는 북한인도 계속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봉쇄 조치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이번 초청을 계기로) 고려항공 운행과 북중 기차편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문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